

平成26年7月20日発行 郵政省許可 平成26年6月15日発行 第一回印刷 東京新聞印刷局印刷 (株) 東京新聞印刷局

月刊
水墨画

2014年 **10** 月号

特集 古都を描く
写生から表現へII
指導 濱中応彦



但一呼六筆
濱中応彦

札幌国際芸術祭2014

九月二十八日まで開催されている札幌初の国際的な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札幌国際芸術祭二〇一四」で、水墨画をベースにしたユニークな作品が注目されている。札幌駅前通地下歩行空間「チ・カ・ホ」に特別展示された十一作家の作品

のうちのひとつ、韓国の女性アーティスト、パク・ジョンソン氏の「デジタル・ウィンディ・パンブー・グローブ」だ。壁面に展示された竹を描いた六枚の水墨画の前を通ると、風がざわめき竹が揺れる仕掛けになっている。原画は韓国近現代美術を代表する画家イ・ウンノの水墨画で、二台のカメラが人の動きをキャッチして反応する仕組み。

パク氏は札幌市の最も新しい姉妹都市大田広域市の出身で、同市から推薦のあったアーティストの中から、芸術祭のゲストディレクターの坂本龍一氏やチ・カ・ホの特別展示「センシング・ストーリー

ムズ」の企画担当者らの話し合いにより参加が決定した。イ・ウンノの生家にてられた個人美術館が大田近郊にあり、同館で展覧会を開催した縁もあることが今回の作品につながった。

完成した作品を体感したパク氏は「地下道は通りの幅も広く気持ちの良い空間で、満足している」と話す。

一日七万人を越える人々が利用するというチ・カ・ホ。札幌の地下道を歩く人々から生み出される風が、今日も竹林を揺らしている。



歩く速度によって竹の揺れ方が変化する

‘바람 부는 대나무숲’ (박정선, 2014) 리뷰, 잡지 <월간 수목화> 2014년 10월호, p. 87, 일본

삿포로국제예술제 2014

‘9월28일까지 개최되는 삿포로 첫 국제 아트 페스티벌 ‘삿포로 국제 예술제 2014’에서 수목화를 베이스로 한 독특한 작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삿포로역전거리 지하 보행 공간 ‘치카호’에 특별 전시된 11작가의 작품 중 하나인, 한국의 여성 아티스트 박정선씨의 ‘바람 부는 대나무숲’이다. 벽 앞을 지나 가면 바람소리가 나고 대나무가 흔들리도록 되어 있다. 원작은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이응노의 수목화로, 두 대의 카메라가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반응하는 원리이다.

박씨는 삿포로시의 새로운 자매도시인 대전시 출신으로, 시에서 추천 받은 아티스트 중에서 예술제 게스트 디렉터인 사카모토 류이치씨와 치카호의 특별전시 ‘센싱 스트림즈’의 기획담당자들의 논의를 통해 참가가 결정되었다. 이응노의 생가에 지어진 미술관이 대전 근방에 있고 그곳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인연도 있는 점이 이번 작품으로 이어졌다.

완성된 작품을 체험한 박씨는 “지하도는 거리의 폭이 넓고 쾌적한 공간이어서 만족스럽다”라고 한다. 하루 7만명을 넘는 사람이 이용하는 치카호. 삿포로의 지하도를 걷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바람이 오늘도 죽림을 흔들고 있다.”

An article about Windy Bamboo Grove in SIAF 2014, Ink-and-Wash Painting Monthly Magazine, OCT 2014, p.87, Japan

Sapporo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14

"At the first 'Sapporo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14' to be held until the 28th of September, a unique art piece based on an ink-and-wash painting is receiving the visitors' attention. As one of the special eleven artworks exhibited in the pedestrian underpass named Chikaho near Sapporo Station, a Korean female artist, Jungsun Park, is exhibiting a piece called the 'Windy Bamboo Grove'. When the pedestrians walk past the wall, a sound of wind is heard and the bamboo grove sways. The original work of the bamboo grove is the ink-and-wash painting by Lee Eungno who represents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Korea, and the artwork is implemented using two cameras that detect human movements, which then causes the painting to respond.

Park was born in Daejeon, a sister city of Sapporo, and was first recommended by the city and was selected to participate after a discussion by Ryuichi Sakamoto, a guest director of the art festival and the organizers of the special exhibition 'Sensing Streams' in Chikaho. The fact that Park had an exhibition at the art gallery located at Lee Eungno's house and that it is in Daejeon has led to this artwork.

Park who finished experiencing the completed artwork said, "I am satisfied that the street of the underpass is wide and clean." Chikaho is used by over 70,000 people. The wind created by the passerby of the Sapporo underpass continues to sway the bamboo grove today."